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수도건설의 새 역사를 펼치신 불멸의 업적

리 명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평양시건설에서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충성의 마음을 그대로 구현하여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7권 132페이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도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밝혀주시고 평양시중심부와 도시전반을 웅장화려한 인민의 도시로 새롭게 전변시키심으로써 수도건설의 새 역사를 펼치시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수도건설의 새 역사를 펼치신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평양시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밝혀주시어 도시건설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나갈수 있는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신것이다.

평양시를 혁명의 수도답게 잘 건설하여야 우리 인민의 기상과 주체조선의 위용을 시위할수 있으며 세계인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64(1975)년 3월 조선로동당 평양시위원회, 건설부문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 《혁명의 수도 평양을 더욱 웅장화려한 인민의 도시로 건설하자》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과 교시들에서 수도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평양을 혁명의 수도로 꾸리는데서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시종일관하게 의도하신대로 수도를 보다 살기 좋고 웅장화려한 인민의 락원으로 꾸리는것과 함께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으로 수령님을 높이 모신 영광스러운 수도로서의 품격과 면모를 갖추게 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우리는 이미 만수대언덕우에 수령님의 동상을 높이 모시였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으로 수도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높이 모신 조건에서 이제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칭송하며 빛내이기 위한 대기념비들과 그러한 건축물들을 일떠세워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리고 수도의 중심부지역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형성하며 중심부와 함께 도시전반을 어떻게 더 잘 꾸리겠는가 하는 방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수도는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고 나라의 얼굴인 동시에 국가의 존엄과도 관련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때문에 나라마다 수도건설을 중시하고 저저마다 수도의 모습에 자기 나라, 자기 식의 민족적풍습과 전통을 반영하려 하였지만 그것은 대체로 형태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 즉 내용적인 의미보다 시각적인 효과, 형태상의 감흥을 주는것을 위주로 한 수도건축방식들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도시건설을 그저 건축공학적, 기술실무적인 문제로, 순수 형태의 미적 표상에 관한 문제로만 보아오던 종래의 수도형성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세계도시건설력사에서 처음으로 평양시를 인민의 수도, 혁명의 수도로 건설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심으로써 도시건설의 새로운 경지를 펼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수도건설의 새 역사를 펼치신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정과 뛰어난 건축학적예지로 평양시중심부가 혁명의 수도로서의 풍격과 면모를 훌륭히 갖추도록 하신것이다.

수도의 중심부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하는것은 수도의 풍격과 면모와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만수대와 남산재축상에 있는 서문동일대를 훌륭히 건설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모신 수도의 중심부를 훌륭히 꾸리도록 하는데 선차적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64(1975)년 12월 서문동일대의 낡은 건물들과 둔덕진 부분을 다 들어내고 거기에 대분수공원과 록지를 형성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후 설계가들이 만든 서문동일대의 록지와 분수형성안을 보아 주시면서 만수대와 남산재축상을 활짝 열어제끼고 록지와 분수공원으로 꾸리자는것은 우리 인민들이 만수대언덕우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어디서나 바라볼수 있게 다시말하여 수도는 곧 영원한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라는것을 더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게 하자는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서문동일대에 만수대예술극장이 시대의 기념비적 건축물로 완공되고 남산재와 만수대사이에 록지와 대분수공원이 형성됨으로써 만수대언덕우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어디서나 환히 볼수 있게 되었으며 수도의 중심부가 수령님을 높이 모신 인민의 수도로서의 모습을 새롭게 드러내놓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도의 중심인 김일성광장 맞은편인 대동강기슭에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과 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주체사상탑을 시대의 대기념비적건축물로 훌륭히 건립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68(1979)년 3월을 비롯한 여러 기회에 인류건축사와 조형예술사에서 처음으로 시대를 향도하는 사상을 칭송하는 주체사상탑건립을 발기하시고 10월에는 그 위치를 수도의 중심인 김일성광장맞은편인 대동강기슭으로 정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사상탑을 이곳에 세우면 광장주석단과 앞으로 건설할 인민대학습당이 일직선상에 놓이게 된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김일성광장이 평양시의 중심이기때문에 인민대학습당자리를 남산재에 잡으시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사상탑의 위치와 함께 탑이 순수 사상을 상징하는 탑으로서가 아니라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전진하는 주체시대의 기원과 불멸의 역사를 대서사시적으로 반영한 시대의 상징물로 되도록 탑형성의 구체적인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건립과정을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심으로써 수도의 중심에 시대적의미의 거창함과 사상주체적내용, 조형예술성에서 완전무결한 주체사상탑이 시대의 대기념비적건축물로, 주체시대의 영원한 상징으로 거연히 솟아오르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남산재언덕에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에 맞게 인민대학습당을 일떠세우도록 하시여 인민의 수도로서의 평양의 중심부의 형성을 완벽하게 해결하시였다.

수도의 건축형성상 중심부를 어떤 건물로 어떻게 형성하는가 하는것은 수도의 성격과 면모를 특징짓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나라 건축력사에 전례없는 전국적인 인민대학습당형성안현

상모집을 조직하도록 하시어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인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형성안을 만들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여러차례에 걸쳐 형성안을 보아주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구상하고계시는 인민대학습당은 현대식이 아니라 조선식이라고 하시면서 수도의 건축형성상 중심축으로 되어야 할 인민대학습당의 건물형식은 반드시 조선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그래야 평양이 조선의 도시, 인민의 도시로서의 성격과 면모를 더욱 살릴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대학습당을 아담하면서도 우아한 형식과 규모, 내용으로 주위환경에 잘 어울리는 특색있는 조선식건물로 건설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대학습당의 규모도 **김일성**광장과 그 주변의 건물들과 조화되는 규모로 하도록 하시고 여러차례에 걸쳐 건설장을 찾으시어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남산재언덕에 인민대학습당이 전민학습의 대전당으로 훌륭히 완공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대로 인민의 도시로서 수도의 중심부형성을 더욱 훌륭히 해결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도의 건축형성상 중심축으로서의 인민대학습당을 건립하신데 이어 만수대의사당을 대기념비적건축물로 새롭게 건설하도록 하시고 뒤이어 **김일성**광장을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더불어 더욱 빛내이시기 위하여 광장에 화강석포장을 하여 세계적인 광장으로 전변시키도록 하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뛰어난 건축학적예지와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과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1980년대 후반기에 수도의 중심부는 혁명의 수도 중심부로서 그 면모가 일신되게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수도건설의 새 역사를 펼치신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사상과 리념을 구현한 현대적인 살림집거리들과 대기념비적건축물을 비롯한 공공건물들을 수많은 일떠세우도록 하시어 도시전반을 웅장화려한 인민의 도시로 전변시키신것이다.

도시전반을 웅장화려하게 더 잘 꾸리는것은 수도를 인민의 수도로, 세계적인 도시로 전변시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을 반드시와 락원거리를 현대적으로 건설하도록 하시어 평양변영기의 서막을 열어놓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64(1975)년 봄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보통별지대에 수천세대의 10층, 20층짜리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 넓고 시원한 대통로들을 갖춘 현대적인 락원거리를 당창건기념일까지 완공하여 수도시민들에게 선물하실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설계가들과 시공일군들이 방대한 공사량과 기일로 하여 주저하고있을 때 당에서 한번 하자고 결심한 일을 못해본적이 없다고 하시며 건설자들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고 전국이 락원거리건설을 지원하도록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고 공사를 립체전, 전격전의 방법으로 밀고나가도록 하시였을뿐아니라 자신께서 직접 설계가, 건설시공주가 되시어 락원거리를 명실공히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되도록 하는데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이와 함께 모든 살림집들에 갖추어줄 랑동기와 TV수상기를 비롯한 20여가지의 살림도구들과 문화용품까지도 동시에 생산보장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따라세우도록 하시고 그를 위한 혁명적조치를 다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적이고도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락원거리는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천세대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 교육문화시설과 상업망으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거리로 일떠서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낡은 룡환선거리를 통채로 들어내고 우리 식의 현대적인 창광거리를 일떠세워 도시건설에서 비약과 혁신을 가져오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67(1978)년 12월 어느날 깊은 밤 찬바람부는 룡환선거리의 골목길들을 빠짐없이 다 돌아보시면서 낡은 거리를 통채로 들어내고 거리설계와 형성안을 완전히 새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대담하고 통이 크게 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리고 주체68(1979)년 10월을 비롯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룡환선거리형성모형을 보시고 우리 식의 거리형성방법과 건물모양들을 창조하도록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한 건축선을 따라 건물들을 병풍처럼 일직선으로 배치하는 방법으로 거리를 형성하던 기성관례와 낡은 틀을 없애고 내부와 외부가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꾸려진 초고층살림집들이 들어선 창광거리가 일떠서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근 2만세대의 살림집과 학교, 유치원, 탁아소, 병원을 비롯한 공공건물들, 상업망, 편의봉사망 등 거의 한개 도시와 맞먹는 문수거리건설을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돐을 계기로 짧은 기간에 끝낼데 대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쳐주시고 건설전과정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심으로써 잡초만이 무성하던 동평양의 문수벌에 짧은 기간에 웅근 한개 도시와 맞먹는 현대적인 새 거리가 일떠서게 되었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현대적인 거리들과 함께 개선문과 창광원, 빙상관과 청류관, 옥류관(증축)과 평양고려호텔, 봉화예술극장과 동평양대극장, 5월 1일경기장과 청년중앙회관,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평양교예극장, 청년호텔을 비롯한 기념비적건축물들과 봉사망들이 일떠서고 만경대유회장과 물놀이장, 대성산유회장, 개선청년공원이 현대적이며 문화적으로 꾸려져 평양은 세계적인 도시로 웅장화려하게 전변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또다시 만수대동상앞으로부터 창전지구에 초고층의 현대적살림집들과 인민극장을 건설할데 대한 구상을 펼치시여 평양을 주체조선의 수도로서의 면모를 더욱 훌륭히 갖추도록 하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평양시가 선군문화의 중심지로, 인민의 수도로 건설됨으로써 평양은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도시건설의 훌륭한 본보기로 되게 되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도건설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어나가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 이 땅우에 인민의 꿈과 리상이 꽃피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워야 할것이다.